

연재를 시작하며

'불교와 과학'이란 주제로 연재를 하게 되면서 한 가지 고민을 하게 되었다. 그 고민의 핵심은 이공계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독자들에게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였다.



박영재 박사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선도회 지도법사

1955년 11월 11일 출생 / 1978년 2월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 1987년 9월부터 1988년 8월까지 뉴욕 주립대(스토니부룩) 이론물리연구소 연구원 / 1989년 9월부터 현재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박영재 교수의 첨단 과학과 불교

학 풍토에 익숙해 있었다. 따라서 암기식 교육에 길들여져 있던 나로서는 매우 힘겹게 친구를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학부 1학년 1학기를 보내고 나니, 학문과 삶에 관한 가치관이 뿌리째 흔들리면서 모든 일에 강한 회의가 밀려왔다.

어떻게 해서든 학문에 관한 뚜렷한 가치관을 확립해 나아가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학부 2학년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숫타니파타>라는 경전을 읽고 답답하던 마음이 시원해짐을 느꼈고 방학이 끝날 때까지 '독화살의 비유' 등의 가르침이 담긴 불교 서적들을 섭렵하면서 너무나 인간적인 '석가모니'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학부때 佛書섭렵...정신적 방향 끝내 수행참선하며 삶·학문의 목적 정립

뜻과 학문을 하는 뚜렷한 목적을 빠르게 세운 뒤 1978년 2월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하였고 1980년 2월 석사 과정을 마쳤다. 그리고는 워낙 눈이 나빠 신체검사서에서 병역면제를 받은 나는 곧바로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이렇게 참선 수행을 통해 삶의 참뜻과 학문을 하는 뚜렷한 목적을 빠르게 세운 뒤 1978년 2월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입학하였고 1980년 2월 석사 과정을 마쳤다. 그리고는 워낙 눈이 나빠 신체검사서에서 병역면제를 받은 나는 곧바로 박사과정에 입학했다.

물리학과와 禪의 만남

필자는 의사였던 아버지와 이웃과 정을 나누며 화목한 가정을 이루셨던 어머니 슬하에서 2대 독자로서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며 아무런 부족함 없이 성장했다. 그후 막연히 과학자의 길을 가기 위해 가톨릭 수도회인 예수회에서 설립한 서강대학교

물리학과에 들어갔다. 그런데 나는 서강대학교를 입학한 후 '우물 안 개구리 식'의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단지 성직에만 집착해 화교 학교를 졸업한 한 친구와 경쟁적인 노력을 계속하였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미 미국식 교육제도를 도입한 대학 교육을 중등학교 때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교육시스템의 대



'임제록' 통한 선 공부 ⑬

조작하지 말라

살아가며, 모양도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그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나 진실을 말하면 모양과 이름을 갖춘 것들은 무상하게 생멸하는 것으로서 도무지 확고부동한 무엇이 없다. 믿고 의지할 만한 무엇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모양

도 없는 '그것'을 공(空)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오온이 바로 공임을 밝힌다. 오온은 생겨나고 없어지는 것이며 많고 적은 것이며 더럽고 깨끗한 것이 다. 보통 우리는 이 오온을 실재라고 여기고 오온에 의지한다.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참구해야

바로 지금 눈앞에서 인연 따라 출몰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인연 따라 출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실을 말하면 어떤 일도 출몰한 적이 없다. 우리는 모양과 이름을 갖춘 것들을 실재라고 여기고 그 속에서 모든 삶을

도 이름도 없는 '그것'이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다. '그것'은 모양도 이름도 없지만, 오히려 모양과 이름을 모두만 들어내고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모양과 이름을 가진 것들을 오온이라 하고 모양도 이

그러나 진실을 알고 보면, 생겨난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고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공이 바로 확고부동한 것으로서 의지할 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온 보다는 공에 의지하는 것이 좋다.

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잠자는 동안에도 씩씩하게 되었고, 어떤 때는 잠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문제가 풀리기도 하였는데 그 기쁨은 천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별 어려움 없이 연구 논문을 국제 학술지에 실곤 하여 모두 6편의 논문을 게재하고 1983년 2월 무난히 박사학위(서강대 물리학과 박사 1호)를 취득하였다. 학위를 받자마자 1983년 3월 공채를 통해 바로 춘천에 있는 강원대학교 물리학과에 조교수로 부임하였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이공 계통의 경우 박사 학위 소지자가 적었기 때문에 국내의든 어디에서 박사 학위를 했느냐에 관계없이, 그리고 그렇게 연줄이 없어도 연구 업적만 조금 좋으면 바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한편 필자는 이 당시 아직 종달 노사 문하(門下)에서 남송(南宋) 시대의 무문해계(無門解界) 선사파 편찬한 선종 최후의 공안집인 '무문관(無門關)'에 있는 화두들을 접경받으며 참선 수행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풀이켜 보면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국립대인 강원대학교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 모두 다 부처님 뜻이라 생각된다. 또한 매주 서울에 종달 노사(入舍)를 들러 방문하였다가 서강대학교 물리학과 이론물리 세미나에도 꾸준히 참석할 수 있어서 최신 연구의 흐름도 계속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학위를 받은 후에도 공동 연구를 통해 국제 학술지에 연구 논문을 꾸준히 발표하면서 연구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생태과외 2032년엔 회복불능

2002 지구환경 보고서

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환경의 날. 유엔환경계획(UNEP)이 최근 내놓은 <2002 지구환경전망 보고서>는 지구가 무분별한 개발 등 생태계 파괴로 날로 망가지고 있으며, 긴급 대책이 없는 한 2032년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수준까지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90년대에 전체 산림의 2.4%인 9400ha가 사라졌으며, 전세계 포유류의 24%인 1130종과 조류의 12%인 1183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경고한다. 2032년에는 전세계 땅의 3%가 콘크리트로 뒤덮이고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물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또 생명체 70%가 심각한 파괴와 생명의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지구와 환경의 파괴는 인간의 이기에서 비롯됐다. 인간의 운명적인 삶을 위해 개발이 마치 최고의 가치인양 인식되어 자연의 파괴는 등한시되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처님은 모든 생명이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다. '산 목숨을 죽이지 말라'는 계율은 일체 생명의 가치가 제한없이 발휘되는 세계를 이루려는 적극적인 가르침으로 해석된다. 모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자각하고 더불어 살아가라는 가르침인 것이다.

■ '온갖 중생이 병들어 있으므로 나에게도 병이 있다. 만약 온갖 중생이 병을 떠난다면, 내 병도 나을 것이다.'

<유마경>

■ '어려 생명을 잡아매어 죽이거나 괴롭게 하여서는 안된다. 나는 이러한 것을 칭찬하지 않는다. 그것은 큰 죄악이기 때문이다.'

<잡야합경>

■ '욕심과 화냄,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산 목숨을 죽인다는 것은 모두 그 죄가 크다.'

<정법범처경>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신중재일 The day for Bodhisattva of the Protection of Buddhist Doctrine. 지장재일 The day for Bodhisattva of Suffering

The day for Bodhisattva of the Protection of Buddhist Doctrine(first day of every lunar month): Buddhist praying for good fortune and offering rice to Bodhisattva of the Protection of Buddhist Doctrine.

신중재일(매달 음력 초하루): 불자들은 신중재일에 신중계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모신다.

The day for Bodhisattva of Suffering(every 18th day of the lunar month): Bodhisattva of Suffering who made a great vow to postpone his own enlightenment until every sentient being in hell was saved. So when someone dies, the bereaved family pray to Bodhisattva of Suffering to help guide the consciousness of the dead person to a better rebirth.

지장재일(매달 음력 18일): 지장보살은 지옥에 있는 모든 생명을 구할 때 까지 자신의 깨달음을 연기할 것을 서원한 보살이다. 때문에 유족들은 지장보살에게 영가 더 나은 세상에서 환생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한다.

침구학 단기 연수안내

국내최초 도입된 중국의 평형침구의학 강의 새로 창안된 남정 사상 침구학 강의 한의사, 전통침구사 침구학에 관심 있으신분 대환영합니다.

질병을 치유코저 하시는 분도 연락 바랍니다. 본원장은 ○대학에 침구학 교수로 재직중입니다.

대체의학 연구원장 대체의학박사

연락전화 02)3159-8886 3158-6977 011) 722-6977

불교신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5월은 실록의 계절입니다. 우리결혼할까요?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10년 노하우의 공동탐미 밀거름이 되었습니다. 불자 인연을 찾아 연대부 지금... 당신을 기다리는 인연의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원장 이영숙 함장

1호선 부천역 미지 북부역쪽 광장 우측 첫번째 골목으로 200m정도 직진 의원오피스텔 202호

※ 방문전 전화약속

■ 대추, 초, 재운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대 결혼 연구원

원장 이영숙 (법명: 無生子)

사무실: 032)654-5411 연구실: 032)346-5422 휴대폰: 011)288-2944

승복, 범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들에게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었습니다.

- 애동승복 직원일동 -

Grid of clothing items with prices and descriptions. Items include 1.복상, 비자, 오끼 (W130,000), 2.후방 (W110,000), 3.두우방 (W120,000), 1.복상, 비자, 오끼 (W130,000), 2.후방 (W110,000), 3.두우방 (W120,000), 1.복상, 비자, 오끼 (W130,000), 2.후방 (W110,000), 3.두우방 (W120,000), 7.조개, 밑배 (W50,000), 7.셔츠 (W30,000).

당뇨, 고혈압

당뇨병 혈당강아 조절제 국내약초 100% 야생약초 90% 生人정

- ▶혈액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이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90%는 야생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생인정은 일부는 달고 일부는 씹어서 배합하여 생산하였으며 일체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인정은 시음으로 먹는 약제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특용성 나타나는 인삼

-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횟수가 줄어들어, 신장기능 약화에 의한 불쾌감이 해소됩니다. •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 관절의 통증과 불편이 없어집니다. • 일반적 무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원기 회복이 됩니다. • 기전피부가 고와집니다. •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 대변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난 후에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귀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 복통과 구역이 줄어들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나는 것도 없어집니다. • 간혹 체질에 따라 다른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점차 없어집니다. • 위의 설명은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임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정맥과 혈관이 좋아집니다. • 신약은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경과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혹 체질에 따라 늦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용본과 박스포장비 5천원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일 3회, 1회 3-4점씩 섭취(나이와 소화능력에 따라 조절) 생인당 주문 및 상담 (054)281-0544